



여수국가산업단지 조성 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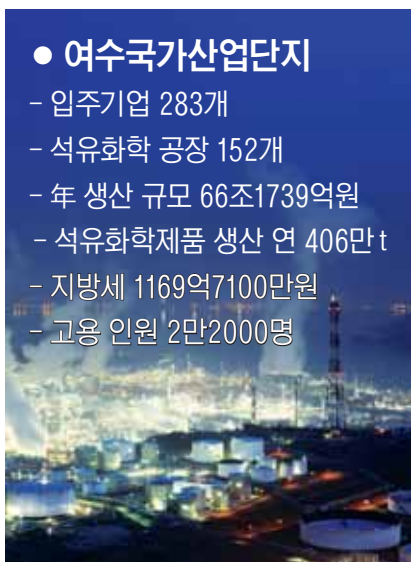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 발전 중추 노후시설 혁신...지역 공헌 늘려야

283개 기업·2만2000명 고용
석유화학 국내 생산량의 절반
장학사업·문화예술 등 지원도
환경문제·안전사고 예방 과제

1967년 기공한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올해로 조성 50주년을 맞았다. 여수국가산업단은 여수는 물론 전남도,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내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 자리매김했다. 50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가 심각해 향후 미래산업으로써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꾸준한 수익 창출과 함께 지역 공헌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여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여수국가산업단에는 283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산단 유일 정유사인 GS칼텍스와 LG화학, 여천 NCC, 롯데 케미칼 등 주요 기업들을 포함한 입주 기업들의 총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66조1739억원(수출 286억1300만 달러)을 달성했다. 지난 2012년 97조, 2013년 98조, 2014년 92조에 비해 급감한 수치로 저유가와 수출 감소 등 국제시장 변동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의 중화학 공업육성 정책을 통해 조성된 여수국가산업단에는 지난 1969년



● 여수국가산업단지
- 입주기업 283개
- 석유화학 공장 152개
- 年 생산 규모 66조1739억원
- 석유화학제품 생산 연 406만 t
- 지방세 1169억7100만원
- 고용 인원 2만2000명

여수시 삼일면 일원에 민간 정유사인 GS칼텍스 여수공장이 처음 들어선 이후 LG화학 여수공장(76년)과 여천 NCC 남사분해공장(79년) 등 석유화학 기업들과 협력 업체들이 잇따라 입주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석유화학산업의 핵심산단으로 우뚝섰다.

지난 1969년 당시 하루 6만 배럴을 생산했던 GS칼텍스 여수 공장은 현재 일 79만 배럴로 13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까지 여수공장에서 정제한 원유량만 80억 배럴(200리터 드럼통기준 560만 km, 지구둘레 140바퀴)로 단일공장 세계 4위를 자랑한다. 이는 국내 처리능력

298만 배럴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석유화학 제품(에틸렌 기준)생산량은 연간 406만t으로 국내 총생산량(850만t)의 48%를 차지하며, 136만t의 비료 생산 능력을 갖춰 연간 국내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중이다.

이러한 성과로, 지난해 도세와 시세 등 지방세 총액 3936억1700만원 가운데 29.7%에 달하는 1169억7100만원을 책임졌다. 2012년 32.5%에 비해 비중은 줄었지만, 지방세 납부액은 184억91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현재 고용인원은 2만 2000여 명에 달한다.

지역공헌에도 적극적이다. 지난 2012년 1100억원을 들여 옹천지구에 조성한 문화예술 공연장인 GS칼텍스 예술마루를 대표로 장학사업(교육기부금)과 도서관 기증 등 사회기반시설 지원, LG화학의 어르신 상안경 수술과 무릎 인공관절 시술(여천 NCC) 등 지역사회에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석유화학 공장만 152곳이 밀집한 여수국가산업 특성상 환경문제와 지난 2013년 발생한 대립폭발사고 등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어두운 그림자'다. 여수시는 오는 2025년까지 10년간 20개 사업에 모두 3520억원을 투입해 '혁신산단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영암시 통일쌀 모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회원들이 15일 오전 영암군 덕진면 들녘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을 기념해 통일쌀 모내기를 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대북 쌀 교류 재개를 바라며 모를 흔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관련기사 3·4면

광주 軍공항 이전 속도내나

'4500억 지원+현안사업 해결'...후보지 4곳 내달 설명회

총리실서 이전지원위원회 주관...사업 획기적 변화 기대

광주시 최대 현안이자 전남도외의 상생의제 중 하나인 광주 군(郡)공항 이전사업이 새 정부를 맞아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대상으로 45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바탕으로 이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간 운영 결과 4곳이 후보지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광주시가 조례 제정에 이어 다음 달 시·군 설명회에 들어간다.

우선 군 공항 이전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법적·행정적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이전 지원 조례가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군 공항 이전 대외협력관 선정과 자문위원회 구성 등이다.

2명의 대외협력관은 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공군본부 등과의 협의와 대응 방안 모색, 광주공항과 신(新) 공항 개발 자문 등을 맡는다.

자문위는 군 공항 이전사업 개발계획 수립과 주민 이주대책, 주민 설득 및 홍보계획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오는 11월 최종 결과가 나올 이전지역 타당성 조사

중간 운영 결과 후보지는 4곳으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45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설명하기로 했다.

주민 설명회와 이전 후보지 대상 주민 투표 등을 거쳐 최종 후보지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이전사업에 들어간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도 오는 21일 합평서 회동을 하고 군 공항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공항 이전 지원위원회를 총리실에서 주관하고 있고, 총리에 이낙연 전남지사가 영전하면서 이전사업에 획기적 변화를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특히 군공항 이전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에 포함된다

다 이전 후보지에 대한 지원 액수가 4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통한 후보지 몰색도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전남도의회와 해당 지자체의 반발 등으로 3~4월에 진행하기로 한 지역 순회 설명회가 수개월 지연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단체장과 지방의회 등에서 군 공항 이전에 강력히 반대하면 사업은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선 공약에 군 공항 이전사업이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와 공항 부지의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도시 등이 담긴 만큼 현 정부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국방부는 2022년까지 5조 7000억원을 들여 새 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부지 개발 등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 최우선 국정과제인데...

비정규직 실태 파악조차 못한 고용노동청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비정규직 제도시대'를 제시했지만,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등을 통계청 자료에만 의존할 뿐 비정규직 인원

등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비정규직 현황의 경우 신고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현황은 통계청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체마다 일일이 연락해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기준도 달라 파악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정규직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내리는 지시는 없었다"며 "장관이 임명돼야 실태파악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새정부의 '비정규직 제도시대'에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정작 담당 부처가 대책마련은 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비정규직 근로자는 18만6000명, 전남은 21만8000명이다. /김현영기자 young@

신동엽, 라미란은 NK뷰키트로 체크합니다

우리나이엔 면역력이 중요하니까

숫자로 확인하는 NK세포 활성도

문의: 080-340-2222 www.nkvue.com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 백남기 농민 사인 병사→외인사 ▶6면
- 신팔도유람-경기도 드라이브 ▶18면
- 슈틸리케 경질...차기 감독 누구 ▶20면